

존 윌킨스의 분석적 언어

나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14쇄에서 존 윌킨스 항목을 삭제해 버린 걸 발견했다. 물론 그 항목에 그리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삭제해 버린 것도 지당한 일이다.(그저 한 스무 줄에 걸쳐 단순한 전기적 내용들을 열거한 것뿐이니까. 윌킨스는 1614년에 태어나 1672년에 사망했다든지, 찰스 루이스 왕자의 사제승을 지냈다든지, 옥스퍼드 대학 단과대 학장을 역임했다든지, 런던 왕실 협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것 등 말이다.) 하지만 윌킨스가 쓴 저서를 고려해 보면 그의 이름을 삭제한 건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윌킨스는 톡톡 튀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신학도, 암호문도, 음악이나 투명 별집을 만드는 일도, 비가시(非可視) 행성의 궤적도, 달나라 여행의 가능성도, 세계 공용어의 가능성과 그 원칙도 모두 관심거리였다. 특히 세계 공용어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실제 문자와 철학

적 언어에 대한 소고』(사륙배판으로 1668년에 발간된 600쪽 분량의 책)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국립 도서관에는 그 책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P. A. 라이트 핸더슨이 쓴 『존 윌킨스의 생애와 시간』(1910), 프리츠 모스너의 『철학사전』(1924), E. 실비아 팅크허스트의 『텔포스』(1935), 랜슬롯 호그벤의 『위험한 생각들』(1939) 등을 참고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온갖 감탄사와 격한 표현들을 쏟아 내면서 luna¹⁵⁹가 moon보다 표현력이 훨씬 풍부함을 (또는 부족함을) 주장하는 여자와 맞서 도무지 당해 낼 것 같지 않은 언쟁을 벌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절의 moon이 2음절의 luna보다 단순한 대상을 재현하는 데 좀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이 논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사실 합성어와 파생어를 빼고 보면, (요안 마르틴 슈라이어의 ‘볼라퓌크’¹⁶⁰와 페아노의 공상적 ‘인터링구아’¹⁶¹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모든 언어는 하나같이 표현력이 부족하다. 스페인 한림원에서 편찬한 문법책은 그 어떤 판형에서건 하나같

159 스페인어로 ‘달’을 의미한다.

160 처음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은 근대적 국제어. 독일의 목사 슈라이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880년 발표되었다.

161 1903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주세페 페아노가 만들어 발표하였으나 라틴어를 기반으로 변형한 이 언어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곧 사장되었다. 이후 언어학자 알렉산더 고드가 정리하여 공식화하였다.

이 “스페인어는 어휘가 다채롭고, 적절하며, 표현력이 풍부하여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언어”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니 그저 교만에 불과할 뿐이다. 스페인 한림원이 몇 년에 한 번씩 스페인어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전을 펴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7세기 중반 무렵에 윌킨스가 고안해 낸 세계어는 어휘 하나하나가 나름의 뜻을 갖는다. 데카르트는 1629년 11월에 쓴 한 편지에서 10진법을 사용하면 단 하루 만에 무한한 사물의 명칭을 다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 즉 과리스모로 쓰기까지 다 통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⁶² 또한 그는 인류의 사고 전체를 조직하고 담아낼 수 있는 보편·유사 언어의 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664년, 윌킨스는 바로 이를 실행에 옮겨 보기로 마음먹었다.

윌킨스는 세계를 먼저 마흔 개의 범주 또는 종(種)으로 나누는 뒤 그것을 다시 차(差)로, 또 그것을 다시 류(類)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종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음절 문자를

162 이론적으로 볼 때,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의 수는 무한정이다. 그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신성이나 천사들이 쓰기에) 무한한 상징의 수, 즉 각각의 완전수에 하나의 상징을 부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물론 가장 단순한 것은 숫자를 딱 두 개만 사용하는 것이다. 0은 0이라 쓰고, 1은 1이라 쓰며, 2는 10으로 쓰고, 3은 11, 4는 100, 5는 101, 6은 110, 7은 111, 8은 1,000 식으로 말이다. 이런 체계를 발명한 사람은 라이프니츠인데, 아마도 「역경」에 나오는 수수께끼의 6괘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같다. (원주)

부여하고, 각각의 차에는 자음 한 개를, 각각의 류에는 모음 한 개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de는 원소(元素)를 의미하며, deb은 원소 중에서도 제I번 원소인 ‘불’을 의미하고, deba는 불이라는 원소의 일부인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다. 르텔리에¹⁶³(1850)의 유사 언어에서도 a는 동물을 의미하고, ab는 포유류를, abo는 육식 동물을, aboj는 고양이과를, aboje는 고양이를 의미하며, abi는 초식 동물을, abiv는 어류를 의미한다. 보니파시오 소토스 오찬도¹⁶⁴(1845)의 유사 언어에서도 imaba는 건물을 말하고, imaca는 방을, imafe는 병원을, imafu는 격리소를, imarri는 집을, imaru는 별장을, imedo는 기둥을 imede는 말뚝을, imego는 바닥을, imela는 천장을, imogo는 창문을 의미하며, bire는 제본하는 사람을, birer는 제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에 별인 이번 조사 작업은 1886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간된 페드로 마타 박사의 『세계어의 발자취』를 근거로 한 것이다.)

존 월킨스의 분석적 언어 속 어휘들은 조잡한 임의적 상징이 아니다. 어휘를 구성하는 글자들은 카발라¹⁶⁵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이 성경 속 글자들과 마찬가지로, 존 월킨스의 분석적 언어

I63 샤를루이오귀스탱 르텔리에(Charles-Louis-Augustin Letellier). 프랑스의 언어학자, 언어철학자. 인공 언어를 발명했다.

I64 Bonifacio Sotos Ochando(1785~1869). 스페인의 언어학자이며, 인위적인 보편 언어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I65 히브리어로 전통을 의미하는 ‘카벨’에서 유래된 말로 유대 신비교의, 혹은 유대 신비주의를 뜻한다.

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스너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 언어가 인공적으로 창제된 것이라는 걸 알아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깨우칠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이 언어야말로 우주의 열쇠이며 비밀의 백과사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윌킨스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다음 과정, 즉 윌킨스 언어의 토대라 할 수 있는 40진법 조건표가 환산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잠시 여덟 번째 범주인 돌의 범주를 한번 짚어 보자. 윌킨스는 돌을 일반석(규석, 자갈, 석반), 값싼 돌(대리석, 호박, 산호), 보석(진주, 오팔), 투명한 돌(자수정, 사파이어), 그리고 불용성 돌(석탄, 점토, 비소) 등으로 분류했다. 아홉 번째 범주 역시 여덟 번째 범주만큼이나 황당하다. 아홉 번째 범주를 통해 우리는 금속이 불완전한 금속(진사(辰砂), 수은), 인공 금속(청동, 놋쇠), 재귀(再歸)성의 금속(줄밥, 녹), 그리고 천연 금속(금, 주석, 구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열여섯 번째 범주로, 타원형의 태생(胎生)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호함과 중복과 결핍 등은 프란츠 쿤 박사가 『천상에 있는 친절한 지식의 중심지』라는 어느 중국 백과사전에 실었던 모호하고 중복적이고 결함투성이인 분류를 떠오르게 만든다. 이 오래된 백과사전에는 동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써어 있다. ㉠ 황제에 예속된 동물들 ㉡ 박제된 동물들 ㉢ 훈련된 동물들 ㉣ 돼지들 ㉤ 인어들 ㉥ 전설의 동물들 ㉦ 떠돌이 개들 ㉧ 이 분류 항목에 포함된 동물들 ㉨ 미친 듯이 날뛰는 동물들 ㉩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 ㉪ 낙타 털로 만

든 섬세한 붓으로 그려진 동물들 ① 그 밖의 동물들 ㉓ 방금 향아리를 깨뜨린 동물들 ㉔ 멀리서 보면 파리로 보이는 동물들. 브뤼셀 도서 연구소 역시 혼돈스러운 분류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연구소는 세계를 1000개의 하위 단위로 세분하는데, 그 가운데 262번째는 교황이고, 282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이며, 263번째는 주일(主日)이고, 268번째는 주일 학교고, 298번째는 몰몬교이고, 294번째는 바라문교와 불교와 신도(神道)와 도교이다. 그 밖에도 완전히 이질적인 하위 분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물 학대, 동물 보호, 윤리적 관점에서 본 비탄과 자살, 다양한 흠과 결점, 여러 가지 덕목과 특성들.” 같은 179번째 분류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윌킨스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혹은 가짜) 중국 백과사전의 저자, 브뤼셀 도서 연구소 등의 임의 전횡(專橫)에 대해 언급했다. 하긴 세상을 분류하는 행위치고 임의 전횡이 아닌 게 있을 수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은 (1779년에 간행된 『자연종교에 대하여』 제5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어떤 유아적 신(神)이 그리다가 자신의 형편없는 그림 솜씨가 창피해 한쪽으로 내동댕이쳐 버린 조악한 스케치에 불과하며, 다른 상위 신들의 비웃음의 대상에 불과한 저급한 신의 작품이며, 어느덧 노쇠해 은퇴하여 죽음을 목전에 둔 신성(神性)의 혼돈스러운 산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단일 유기체(有機體)란 의미에서 볼 때 ‘우주’라는 야심찬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세상이란 없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설사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해도 그

존재의 목적을 짐작할 수가 없다. 신이 만든 비밀 사전 속 어휘들과 그 뜻, 어원과 동의어 등도 짐작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라는 신성한 체계를 통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비록 임의적이거나 인간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을 결코 단념하지 않는다. 월킨스의 분석적 언어 역시 이런 인간의 체계만큼이나 가당한 시도이다. 월킨스 언어 속의 종과 류는 상호 모순적이고 경계도 모호하다. 하지만 어휘를 이루고 있는 철자 하나하나가 각각의 하부 개념과 그 범주를 가리킨다는 전략 자체는 무척 창의적이다. 예를 들어 ‘salmón(연어)’이라는 어휘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지만 ‘연어’에 해당되는 월킨스 언어의 어휘 zana는 (40개의 범주와 그 범주가 정하는 종(種)의 구분에 정통한 사람에게는) 육질이 붉은, 비늘 덮인, 민물고기를 의미한다.(각각의 존재의 명칭 속에 그 존재의 운명과 과거와 미래가 포함된 그런 언어를 고안해 낸다는 게 이론적으로 보자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희망과 유토피아를 제외하고, 언어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정의한 글은 다음과 같은 체스터턴의 글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 가을 숲속의 색깔들보다도 더욱 더 다채롭고 훨씬 더 무한하며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색깔들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온통 서로 뒤섞여 변해 버린 그 수많은 색깔들조차도 신음과 고향 같은 임의 메커니즘에 의해 제각각의 색깔을 또렷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식 중개인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은 하나같이 신기에 가까운 기억력과 조바심으로 가득한 번민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G.F. 와츠』(1904), 88쪽)